

(주소) 1648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00 (팩스) 031-236-0223

배 포 일	2026.1.29.(목)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6.1.30.(금)				
경기문화재단, 2026년에도 예술창작 지원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통합 공모사업 추진		4쪽	1장	www.ggcf.kr	부서: 홍보마케팅팀 담당: 장효진 전화: 031-231-7262

## 경기문화재단, 2026년에도 예술창작 지원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통합 공모사업 추진

- ▶ 지역 문화 자원 발굴부터 청년·원로 예술 지원까지...도내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 ▶ 공모 방식 통합부터 창작공간 지원까지...맞춤형 예술지원체계 본격 가동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넓히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경기도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과 발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예술지원 공모’를 시행하고, 지역의 문화 자원을 발굴해 예술가와 주민을 연결하는 등 일상 속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2026 경기예술지원 공모’는 기존에 1·2차로 나누어 진행하던 방식을 2026년부터 통합해 일괄 공모로 운영한다. 공모는 ▲기초예술 창작지원(문학·시각·공연) ▲모든예술31(경기예술 활동지원) ▲경기 미술품 유통활성화(아트경기)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문학·시각·공연) ▲원로 예술 활동지원(문학·시각·공연)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K-ARTS 청년창작자 지원 등 총 9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초예술 창작지원’은 경기도 내 시·군 지역 제한 없이 문학 분야,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 신작 창작을 위한 기초예술 장르별 지원사업으로, 창작품 실연·제작 및 성과 발표를 지원한다.

‘모든예술31(경기예술 활동지원)’은 신작·기존작에 구애 없이, 경기도 31개 지역 내 창작·발표되는 모든 기초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2026년 기준, 기초문화재단이 미설립된 7개 시·군(가평, 동두천, 시흥, 안성, 양주, 연천, 의왕)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를 시행하고, 기초문화재단이 소재한 24개 시·군(고양, 과천, 광주,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이천,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은 경기문화재단과의 예산 매칭을 통해 자체 공모를 시행한다.

‘경기 미술품 유통활성화(아트경기)’은 시각 분야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전문 유통사업자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예술 분야 작가를 선발하여, 미술품 임대 및 판매사업 운영비(유통사업자)와 출품지원금(작가)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은 공모지원 사업에 처음 발을 내딛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단체)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경기문화재단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및 발표활동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원로 예술활동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 원로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지원한다.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대표자가 원로 예술인이거나 사업 성격이 원로 예술활동에 가까울 경우 단체로 지원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신작 창작을 위한 취재, 리서치 등 예술창작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도내 예술인 170명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을 300만원씩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의 월 임차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은 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는 창작공간의 기획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내 민간문화예술공간이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공연, 전시, 교육, 행사 등)에 대해 평균 2,00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K-ARTS 청년창작자 지원’은 경기도 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예술창작자(1986.1.1. 이후 출생)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 900만원의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2026 경기예술지원 공모’는 2월 13일에 공고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https://www.ncas.or.kr>)을 통해 2월 13일(금) 10시부터 3월 3일(화)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4월 17일(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9개 부문 중 ‘K-ARTS 청년창작자 지원’ 부문은 수도권 통합 접수로 운영됨에 따라 접수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해당 부문은 3월 3일(화) 15시부터 3월 30일(월) 15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역·장르별 비례배분 방식으로 선정한 뒤 4월 중 별도로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은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문화와 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과 ▲지역 생활문화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은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예술 실천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 공모 지원 외에도 ‘옆집예술’프로젝트와 지역문화기획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 생태계 조성을 함께 도모한다.

‘경기북부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 불균형, 문화 소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강화를 꾀하는 공모 지원 사업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고유한 지역문화를 특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사업은 2월 중순, ‘경기북부 지역문화 특성화 공모’는 3월 중 공고 및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생활문화플랫폼 및 민간 문화공간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합한 생활문화정책 사업인 ‘지역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시민 역량 강화 및 도민의 일상 속 자발적 문화활동 활성화,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붕없는 박물관 운영’사업을 통해 주민-전문가(예술/학술)-공공부문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발굴하며, 지속가능한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생태·역사 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사진자료]



경기문화재단 전경